

폭력의 시대 詩로 맞선 민중시인 竹兄을 기린다

나아가다 밀리고 나아가다 부서질지라도
노래 위에서 함성 위에서 출렁이다가
병어리로 병어리로 그 자리에 주저앉아
누울지라도 누울지라도

-조태일, 시 '파도처럼' 중에서



조태일 시인 18주기 문학추진

9월 9일 곡성 조태일시문학기념관

80년대 육성 청취·공연·전시 다채

70~80년대 암울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온몸으로 맞선 저항시인이자, 문학사에 남을 '국토' 연작시로 잘 알려진 곡성 출신 축형(竹兄) 조태일(1941~1999·사진) 시인의 삶과 문학정신을 기리는 행사가 마련된다.

(사)축형조태일시인기념사업회(이사장 박석무)와 곡성군(군수 유근기)이 주최하는 '조태일 시인 18주기 문학추진'이 9월 9일 오후 3시 곡성 조태일시문학기념관에서 열린다.

시인의 18주기(9월 7일)를 맞아 '꽃잎이 흔들릴 때 나는 노래가 되었다'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권력의 부조리에 저항하며 한국문단을 이끌었던 고인의 삶과 작품세계를 기리는 다양한 내용으로 진행된다.

'조태일전집' 발간 등 조태일 시연구를 해 온 이동순 조선대 자유전공학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에는 문단 선후배, 제자, 가족 그리고 자운영·길작은문학회 등 곡성지역 문학단체도 함께

참여한다.

먼저 오월시 동인으로 활동하며 시집 '무등에 올라' 등을 펴낸 나해철 시인의 여는 시 낭송을 시작으로 박관서 광주전남작가회의 회장, 안상학 한국작가회의 사무총장이 추모사를 통해 조 시인의 삶과 문단 활동에 대해 들려줄 예정이다.

또한 고영서·박두규·강경아·유종 등 지역 시인들의 시낭송, 고인의 광주고 동문인 장창환 선생의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시인'을 주제로 한 조태일 시인과의 추억 등이 이어진다. 이은봉 시인은 '발바닥이 닳아 뜯는 세살의 시인'을 주제로 대지의 강인한 생명력을 토대로 권력의 폭력에 맞섰던 시인의 시세계를 들려준다.

특히 이번 무대에서는 조 시인의 오래된 목소리도 새롭게 공개된다. "나아가다 밀리고 나아가다 부서질지라도/ 노래 위에서 함성 위에서 출렁이다가/ 병어리로 병어리로 그 자리에 주저앉아/ 누울지라도 누울지라도"(시 '파도처럼' 부분)라며 굽힘 없이 저항했던 조 시인의 강직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 고인의 이번 육성은 1980년대 중반 한 문학행사에 참가해 시 '파도처럼'을 낭송할 때의 것으로, 30년이 넘는 시간을 거슬러 당시 사회적 모순과 억압을 고발했던 시인의 가열한 목소리를 가늠할 수 있다.

이밖에도 다양한 장르의 공연이 펼쳐진다. 남도

소리의 맥을 잇고 있는 내뱃소리민족예술단은 조 시인의 대표시 '국토'에 곡을 붙인 음악을 선사하고, 춤패 '춤추는 나무'의 춤 공연도 이어진다.

광주와 전남 작가들의 시화 50여 점도 전시된다. 작품은 조태일시문학기념관을 중심으로 태안사 계곡을 따라 전시될 예정인데 동리산을 찾는 등산객들에게도 잔잔한 감동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축형조태일시인기념사업회 박석무 이사장은 "조 시인은 70년대 후반 '시인'이라는 출판사를 운영하면서 저의 역사 '유배지에서 보낸 편지'를 출간하기도 했다"며 "그는 시만 읊은 민중시인이 아니라 온몸으로 독재에 항거했던 남도가 배출한 위대한 시인"이라고 밝혔다.

한편 조태일 시인은 곡성 태안사에서 대처승의 7남매 중 넷째로 태어났으며 광주서중, 광주고, 경희대를 졸업했다. 1964년 경향신문 신춘문예에 당선돼 문단에 나왔고, 시집 '아침선박', '식칼', '국토', '자유가 시인더러', '꽃잎이 꺾이지 않는다', '혼자 타오르고 있었네' 등을 펴냈다. 편운문학상, 만해문학상 등을 수상했으며 보관문화훈장이 추서됐다.

이번 행사는 누구나 무료로 참여 가능하다. 참가를 희망하는 사람은 행사 당일 오후 1시 5·18기념문화센터(광주 상무지구)에서 출발하는 전세버스를 이용하거나 개별적으로 참가하면 된다. 문의전화 062-523-7830번. /박성천기자 skypark@

광주지역 예술인 연평균 수입 826만원

민간예술단체 활성화 정책토론회

광주지역 예술인 연평균 수입이 826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수도권에 45.6%에 불과하고 수입이 없는 예술인도 59%에 이르는 수준으로, 향후 민간 예술단체 활성화로 일자리 창출 방안이 적극적으로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주장은 30일 오후 4시 광주광역시의회 시의회 5층 예결위원회 회의실에서 '민간예술단체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방안 모색' 정책토론회에서 나왔다.

김용집 광주시 의원이 좌장을 맡은 이번 토론회

는 문화예술 일자리 활성화 등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다. 조인형 광주전남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이 공연예술단체를 중심으로 광주시 민간예술단체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방안에 대해 발제했으며 안태기 광주대학교 호텔관광경영학부 교수, 박진현 광주일보 제작국장(문화전문기자), 김인설 전남대학교 문화전문대학원 교수, 이연수 광주매일신문 문화부 팀장, 이효숙 아트광주17 홍보위원장, 류영춘 광주시 문화예술과장 등 6명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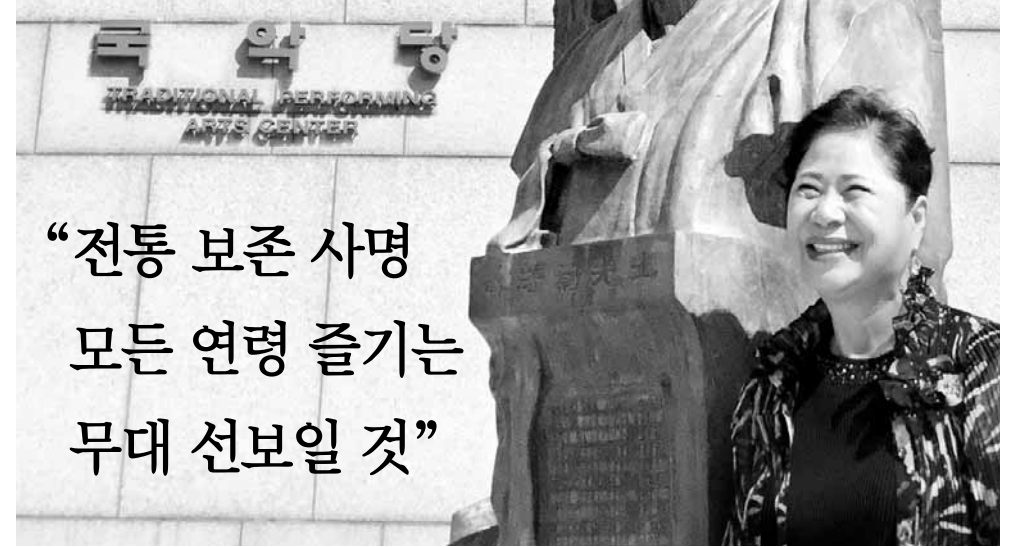
조인형 책임연구위원은 발제문을 통해 "공연예술단체에 속해있는 예술인들의 실질적 상황을 분석한 바, 이들을 위한 행정적·재정적인 지원책이 매

우 미비하다"고 지적하며 "예술인 처우개선을 위한 방법으로 민간예술단체 지원을 통해 공연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조 책임연구위원은 "이 같은 공연 활성화는 기획자와 연주자에 대한 수요 증대로 이어져 공연 예술문화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기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용집 의원은 지속적인 예술 분야 인프라 확충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열악한 처우로 고동받고 있는 지역예술인들을 위해 공연기회를 늘리는 것뿐 아니라 관련 일자리를 확대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이 중요하다"며 "이를 통해 광주를 방문하는 누구나 인정한 만큼 진정한 문화도시 광주로의 변화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전통 보존 사명 모든 연령 즐기는 무대 선보일 것"

유영애 신임 광주시립창극단장 "고려 무등산가 바탕 작품 계획"

"우리 전통을 살리면서 이 시대의 흐름에도 뒤처지지 않는 다양한 무대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앞으로 광주 시민 여러분의 격려와 사랑과 도움으로 더불어 소통하며 전통과 퓨전을 함께 알리겠습니다."

전라북도무형문화재 제2호 판소리 심청가 예능 보유자인 유영애(사진) 명창이 지난 23일 광주시립창극단 제7대 예술감독으로 위촉됐다.

지난 24일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에서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간 유 명창은 오는 2019년까지 2년 동안 광주시립창극단을 이끈다. 현재 광주시립창극단은 총 48명의 단원으로 구성돼 있다.

유 명창은 "취임식을 치르자마자마자 단원들과 작품 연습에 돌입했다"며 "광주에도 이런 대단한 작품을 선보이는 공연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또한 수준 높은 작품을 준비하는 것 외에도 청소년, 청년, 노년까지 각각의 연령에 맞게 즐길 수 있는 공연을 선보이는 데 초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취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벌써 공연이

많이 잡혔어요. 9월14일 문예회관 대극장에서 여는 '가을을 그리는 타현(打絃)', 그리고 11월 정기공연 '솔의노래'가 예정돼 있어요. 물론 그 중간 중간 나주, 전주에서도 짙지만 의미있는 공연을 선보일 계획입니다."

유 명창은 국립민속극단의 창극단 지도위원, 창극단 악장, 예술감독 등을 역임했으며, 제15회 남원 춘향제 전국판소리경연대회 대통령상, KBS 국악대상 등을 수상했다. 또한 지난 2002년 장수군 변암면 대성방마을에 유영애 판소리 전수관을 짓고 판소리의 세계화와 후진양성에도 매진하고 있다.

그동안 유 명창은 지역 국악계의 교류공연 외에도 미국 12개주 순회공연, 세계한민족심포지움(홍콩) 국악인 대표, 독일 '아프리카 물대주기 모임' 자선공연 등에 참가하는 등 국내외 다양한 공연을 통해 국악의 저변확대와 판소리의 세계화에 앞장섰다는 평을 받았다.

향후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도 밝혔다. "천천히 시간을 가지고 판소리 5바탕을 꼭 완판하고 싶습니다. 더불어 고려시대 무등산가를 바탕으로 광주와 무등산이 어우러지는 작품도 기획할 예정이구요. 무엇보다 보다 많은 분들이 보고 즐길 수 있는 무대를 만들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전문재기자 e16621@

담빛창고,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연계 9월 특별전

중견작가 12명 공예 가치 조명

담양 담빛예술창고가 2017 광주디자인비엔날레(9월 8일~10월 23일) 광주비엔날레 전시관 등과 연계한 특별 기획전을 마련했다.

전남북 지역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중견 작가들을 초청한 이번 전시 주제는 '융합적 사고와 크라프트의 복잡성-그 어디든 아트가 되었다'로 오는 9월 1일 개막해 30일까지 계속된다. 개막일인 1일에는 오프닝(오후 5시)과 함께 특별한 오르간 연주회도 열린다.

이번 전시에서는 회화, 도자, 금속, 목질, 섬유, 디자인 각 분야에서 자신만의 개성있는 공예 작품을 선보이고 있는 작가들을 만날 수 있다. 참여자는 도자의 강경아·김귀복, 금속의 김선애·김현주·조수진·윤지희·장영애, 섬유의 한선주·유경의·성영주·김이재·송수미, 시각의 김희정 등 40~50대 중견작가 12명으로 각자의 분야에서 확고한 자리를 구축한 이들이




오르가니스트 박은혜

다. 전시작들은 공예가 갖고 있는 전통적 가치와 상업적 가치 등에 대한 고민을 풀어놓은 작품들이다. 오후 6시부터 한 시간 동안 담빛예술창고 카페에서는 오르간과 색소폰 연주가 어우러진 'Mr.Sax 오르간을 만나다' 공연이 열린다. 담빛예술창고에 있는 대나무 파이프 오르간 연주를 만날 수 있는 기회로 오르가니스트 박은혜씨와 색소포니스트 이승우 씨가 호흡을 맞춘다.

연주 레퍼토리는 바흐의 '예수는 나의 기쁨', 비탈리의 '샤콘느', 마르첼로의 '콘체르토 d단조', 엔리코 모리코네의 '가브리엘의 오보에' 등이다. 문의 061-383-8240.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지오옥션 부동산 중개법인(주)
20년경력 조여사 010-6211-4585

경, 공매 컨설팅

수익형 추천

- ★ [건물] 서구 쌍촌동 메인상권 지하2층 지상10층 대지 777㎡ 건물 5,900㎡ 매매 55억 (보17억1천 월1천1백 5십만)
- ★ [건물] 동구 동명동 대로변접 상가주택건물 5층 대지 452㎡ 건물 1,464㎡ 매매 17억
- ★ [건물] 광주 광산구 송정동 중심상권 일반상업지역 위치좋은 상무대로변 지상1층건물 대지 1342㎡ 건물 413,49㎡ 매매 49억
- ★ [건물] 광주 서구 동천동 동림2지구내 중심상권 아파트 상가 밀집지역 하남대로변 위치좋은 지하1층~지상7층 대지 867,90㎡ 건물 4124,36㎡ 매매 65억 (보5억 월수익 3천9백)
- ★ [건물] 광주 동구 지산동 중심상권 상가 밀집지역 위치좋은 지하1층~지상5층 대지 198㎡ 건물 729㎡ 매매 25억 (보5억6천500만)
- ★ [고시원] 광주 동구 서석동 객실 36개 5층건물 1층커피 대지 423㎡ 건물 845,23㎡ 매매 18억 (대출7억 월수익1천3백)

병원

- ★ [의료시설] 전남 곡성군 오산면 요양병원 (2천평 신축부지 허가완료 포함) 지하층 지상5층 토지 19,860㎡ 건물 2,545㎡ 매매 50억
- ★ [의료시설] 광주시 남구 주월동 의료시설가능(현 상가건물임) 지하층 지상7층 토지 995㎡ 건물 2,030㎡ 매매 47억
- ★ [의료시설] 광주시 동구 산수동 지하층 지상4층 토지 597㎡ 건물 948㎡ 매매 20억
- ★ [의료시설] 광주시 북구 양산동 지상5층 토지 475㎡ 건물 1,044㎡ 매매 20억
- ★ [의료시설] 광주시 광산구 월계동 지하층 지상7층 토지 1,350㎡ 건물 3,943㎡ 매매 53억
- ★ [의료시설] 전남 화순읍 신기리 지하층 지상4층 토지 8,630㎡ 건물 6,300㎡ 매매 100억

토지 추천 물건

- ★ [토지] 전남 장성군 서삼면 추암리 생산관리지역 대지 2,720㎡ 매매7억 펜션부지, 전원주택 적합
- ★ [토지] 전남 함평군 대동면 금곡리 대규모 펜션 카페대지 15,668㎡, 건물 900㎡ 미래가치우수 매매가 상당후결정 인근 27홀 골프장 시설 부지 확정
- ★ [토지] 전남 곡성군 오산면 봉동리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임야 52,504㎡ 매매 평당5만
- ★ [토지] 서구 치평동 대로변접 대지 3470㎡ 매매 73억4천8백만
- ★ [토지] 광산구 송정동 대로변접 대지 1342㎡ 매매 45억
- ★ [토지] 동구 지산동 대로변접 자연녹지지역 대지 1,948㎡ 매매 27억 7천만
- ★ [토지] 전남 창평면 삼천리 계획관리구역 대지 3,041㎡ 매매 평당70만 전원주택 (단지조성가능) 적합
- ★ [토지] 북구 삼각동 1층주거지역 대지 1,326㎡ 매매 평당2백7십만

공인중개사 김은희 010-6243-3704